

한의대생의 휴학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안효자¹⁾ · 신현태²⁾*

¹⁾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²⁾ 동신대학교 한의예과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Stop-out of Korean Medicine Students

An, Hyo Ja¹⁾ & Shin, Heon Tae²⁾*

¹⁾ Nursing department, Dongshin University, ²⁾ Korean medicine department, Dongsh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op-out experiences of Korean Medicine Students(K,M,S.). The stop-out is defined as a withdrawal temporarily from enrollment at a university.

Methods :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from 2013 to 2016 and analyzed with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once or twice, for 30minutes to 50minutes per interview.

Results : Ten theme-clusters were identified from 21 themes. These theme-clusters were divided to 4 divisions as when they made the decision for the stop-out, during their stop-out period, when they went back to school and the meaning of their stop-out.

'A difficult situation to continue the study', 'Uncertainty about their decision and anxiety of the future' are 2 theme-clusters for when they made the decision for the stop-out, 'Conflict and anxiety', 'Novel and free time', 'Improving family relationship and finding new relationship' are 3 theme-clusters for during their stop-out period, 'Anxiety for the returning to school', 'New relationship and sense of relief' are 2 theme-clusters for when they went back to school, and 'Making a present for me', 'An opportunity for the emotional growth', 'Recovery of learning will' are 3 theme-clusters for the meaning of their stop-out that they gave to it.

Conclusions : The stop - out of K,M,S. began at the hope that they want to take the lead for their lives. And they would find themselves more mature after the experience of their stop-out. This result could be a basic reference for the counselling of the faculty working with K,M,S.

Key words : Korean Medicine Students, Stop-out, Qualitative research

• 접수 : 2016년 7월 2일 • 수정접수 : 2016년 7월 13일 • 채택 : 2016년 7월 14일

*교신저자 : 신현태(Shin, Heon Tae), Korean medicine department, Dongshin University 185 GeonJae-Ro, Naju, Jeonnam Korea,

전화 : 82-61-330-3528, 팩스 : 82-61-330-3519, 전자우편 : goodomd@naver.com

I. 서론

전국 한의대생 중 약 3.4% 정도의 학생들이 매년 휴학을 경험하고 있다¹⁾. 이는 유급과 질병 휴학 등을 포함한 수치로 약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매년 휴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국 대학생의 평균 휴학을 24.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10년간 한의대생의 휴학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관심을 가지고,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²⁾. 선행연구에서 한의대생의 휴학 관련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같은 의료계열인 치과대학의 경우는 휴학·자퇴를 고려한 경험유무를 조사 한 결과로 1학년은 경제적 이유를 2,3학년은 적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휴학을 한다고 답하였다³⁾. 또한 의과 대학의 경우는 유급을 포함하여 매년 약 10%정도 휴학을 경험하는데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급뿐만 아니라 스스로 휴학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는데, 불안정한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립된 인간관계를 가진 학생들이 주로 휴학을 경험한다고 하였다⁴⁾⁵⁾. 간호학과는 8% 정도의 학생들이 휴학을 경험하였으며⁶⁾, 휴학 원인은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주변의 권유로 진학을 했다가 대학의 특수한 문화와 학습방법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휴학을 경험한다고 하였다.⁷⁾

이렇듯 같은 의료계열 대학이라도 각각의 전공에 따른 학문의 차이, 학과의 특징에 따른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담과 제도개선 및 학습지원을 위해서는 각 학과별로 대학생들의 휴학의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 연구결과⁴⁾⁷⁾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 후 사회에 나가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얻게 되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의 의료계열 분야의 학과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주변의 권유로 진학을 했다가 대학의 특수한 문화와 학습방법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휴학을 결정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한의대생들은 한의과에 진학하면 한문, 동양철학 등 고교학습과정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과목을 첫 학기부터 접하게 된다. 낯선 과목들과 새로운 학습 환경 속에서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대학생활을 걱정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질환 등으로 휴학을 고민하기도 하며, 또 휴학결심을 실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며, 휴학이나 진로고민을 상담해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의 기초자료는 매우 드문 편이다. 따라서 그들의 휴학 경험에 대한 본 연구는 향후 한의학과 학생들의 지도와 상담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휴학의 원인과 휴학기간동안의 경험은 개인별 특수성에 따라 다르며, 이는 인간의 경험을 풍성히 드러내는 질적 연구에 합당한 주제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의대생 휴학 경험의 본질을 밝히고 의미를 이해하여 학생상담 및 지도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의대생의 휴학 및 복학 경험의 의미를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이다.

III. 연구 문제

- 1) 한의대생 휴학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 2) 한의대생들은 휴학기간 중 어떤 경험을 하는가?
- 3) 한의대생들은 복학 즈음에 어떤 경험을 하는가?
- 4) 한의대생에게 휴학은 어떤 의미인가?

IV.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의대생의 휴학 및 복학에 대한 경험을 심층면접을 통해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 중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⁷⁾를 활용한 이유는 현상학적 연구가 개인이 느끼는 현상과 의식에 대해 해석하고 의미를 밝히는 귀납적인 연구방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의대생의 휴학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한 가지인 Colaizzi방법을 활용하여 한의학과에서 휴학을 경험한 학생들이 심층면접을 통해 진술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고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한의대생의 휴학 경험에서 나오는 휴학 요인에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도에 위치한 D대학에 한의학과 재학생들로, 모두 휴학과 복학을 경험하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취지를 듣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11명이었다. 유급으로 인한 휴학, 군 휴학은 연구취지 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자 4명 남자 7명이었다(Table 1).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먼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참여자의 의지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시작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익명보장을 약속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 참여자가 협조해준 면담내용의 경우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면담내용은 녹음되는 것을 설명하고 녹취본과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 대신 부호로 언급하여 익명성을 강조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임의표

집방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자료가 포화된 2016년 3월까지였다. 처음 연구 참여자와의 만남에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그 뒤에 휴학 경험에 관련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다음에 약속 날 만날 때까지 생각해 보고 오도록 하였다. 반 구조화로 만들어진 휴학에 관련된 질문지의 문항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학결심 직전 7문항, 휴학동안 4문항, 복학 4문항, 기타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면담은 두 번째 만남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면담은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했으며, 자료의 누락을 막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에서 50분사이로 진행이 되었으며 참여자 1명당 면담 1~2회를 수행하였다. 면담이 끝나면 녹음된 자료를 활용하여 필사하는 작업을 가졌으며, 자료는 바탕체 10포인트 기준으로 A4용지 5~10장이었다. 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전체적으로 녹음된 자료와 비교작업을 거쳐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확인하였다. 필사작업을 통해 얻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자-페이지-의미문장으로 배정하였으며 모든 연구와 관련된 녹취, 전사 작업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폐기할 예정이다.

5. 자료분석방법 및 신뢰도 타당도 확보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휴학에 관련된 경험을 직접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진술 받은 것을 통해 최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기술할 수 있는 Colaizzi 현상학

Table 1. Participants to the study

No.	Age (When stop-out)	Sex	Causes of the stop-out
1	21	M	Health problem
2	32	F	Pregnancy
3	33, 36	M	1) Health problem 2) Rest
4	23	M	1) Health problem 2) Rest
5	22	M	Preparing to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6	30	M	Preparing to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7	25	M	Nursing needs of family
8	22	F	Preparing to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9	23	F	Trip
10	27	F	1) Financial problem 2) Low academic record
11	31	M	1) Rest 2) Low academic record

적 연구방법의 7단계⁹⁾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 휴학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면담내용 녹취본을 듣고 필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보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휴학경험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느낌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2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속에서 휴학이라는 현상이 연관된 의미나 문장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총 90개의 문장이 선택되었다.

1,2단계의 작업을 통해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찾은 90개의 문장 중 79개의 의미 있는 문장을 다시 하위주제(sub-theme)로 분류하여 휴학에 대한 의미에 연관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4단계에서는 지금까지 구분한 의미들을 주제(theme)와 주제모음(theme clusters)으로 다시 구분지어 범주화를 시켰으며, 이를 통해 21개의 주제와 10개의 주제모음을 만들었다. 5단계에서는 3단계로 구분지어 하위주제, 주제, 주제모음으로 구분지어 설명하면서 한의학과 휴학생들이 각각 가지는 경험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의미를 통합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6단계에서는 5단계까지의 조사된 개개인의 현상학적인 근본적인 부분을 기술하면서 연구에서 확인된 휴학경험의 공통적 요소를 합하여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7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을 정리하고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입장이 되어 연구의 타당성을 고민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의 자료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연구 내용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Guba와 Lincoln¹⁰⁾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기준을 따랐다.⁷⁾ 사실적 가치(true value)를 확보하기 위해 휴학경험에 관련된 면담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면담으로 휴학경험을 파악하였으며,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애매모호한 진술의 경우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을 하여 의미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알아낸 주제모음, 주제, 하위주제를 연구 참여자 2명이 읽어보면서 자신의 경험과 동일한지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에게 이번 면담을 통해서 휴학에 대해서 정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였으며,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하였다. 연구의 적용성(applicability)에 관련하여 휴학경험을 주제로 참여자간의 맥락상의 차이나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차이로 간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시 연구 참여

자의 개별적인 각각의 배경을 이야기 하면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 있는 의미 있는 진술에 관련하여 심층면담을 통한 주제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와 면담 진행시 이야기가 반복되고 더 새로운 정보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수집하고 심층 기술하였다. 그리고 일관성(consistency)을 가지기 위해 연구 참여자를 통해 발견된 자료에서 분석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자료의 일관성을 가졌다. 또한 면담 전에 연구자 간에 한의학과 학생의 휴학에 대한 토의를 계속 진행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성(neutrality)을 확보하였다.

V. 연구 결과

참여자는 모두 11명이며 남학생 7명 여학생 4명이다. 휴학 원인으로 이들 중 3명은 건강상의 문제로 휴학을 하였고, 또 다른 3명은 입학 후 다른 학교의 재입학을 위해 휴학을 하였으며, 이 밖에도 휴학의 원인으로 출산, 경제적인 이유, 여행, 학업저조 등을 원인으로 휴학을 하였다. 휴학과 복학을 선택함에 있어 교수, 가족, 친구 등 인간관계가 영향을 미치긴 하였지만 선택과 결정은 본인이 하였다. 참여자들의 휴학경험을 4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하위주제 38개, 주제 21개, 주제 모음 10개를 도출하였다(Table 2).

1. 휴학 결심 단계에서의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고민을 통해 휴학을 결심하였다. 휴학 결심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도 있었지만, 몇몇 학생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해 보는 자기 주도적 결정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갈등의 상황에서 친구들, 선배, 이성 친구, 부모님과 상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갈등과 불안감을 경험하였다(Table 3).

1) 학업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놓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진술한 휴학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경우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선택’이 있었다.

Table2. Theme clusters and themes of the experience of the stop-out

Division	Theme clusters	Themes
When making up their mind to stop-out	A difficult situation to continue the study	Having no choice
		Self-directed choice
	Uncertainty about their decision and anxiety of the future	The opposition of their parents
		Uncertainty to the success
During the stop-out period	Conflict and anxiety	Uneasy cohabitation with family
		Feeling left alone and anxiety
	Novel and free time	Rechallenging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ime alone
		Trip for my growth
	Improving family relationship and finding new relationship	Building new relationship
Strengthening family ties		
After returning to school	Anxiety for the returning to school	Anxiety about new relationship and adapting new environment
	New relationship and sense of relief	Building new relationship and sense of relief
		Adapting themselves to new learning surroundings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the stop-out	Making a present for me	Escaping from the environment of controlling me
		Opportunity for my dream
	An opportunity for the emotional growth	Changing of the human relationship around me
		Changes of mentality, personality and attitude
	Recovery of learning will	Trying a new learning method
		Having a new learning motivation

(1) 어쩔 수 없는 선택

참여자들 중 5명은 출산, 경제적 이유, 가족 병간호, 본인의 건강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휴학을 해야만 하는 선택을 하였다.

(2) 자기 주도적 선택

참여자들은 함께 입학한 동기들과 학과생활을 함께 할 수 없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휴학을 통해 자신의 목표였던 의대입학을 다시 도전하거나, 학과 생활을 하면서 해볼 수 없는 해외여행 등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며, 바쁜 학과생활을 모두 내려놓고 휴학 기간 중에 아무 계획 없이 휴식을 취할 계획을 가지기도 하였다.

2) 불확실한 선택과 불안감

연구 참여자들은 휴학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휴학 초

기 경험으로 연구 참여자들 중 대부분은 휴학에 대해서 부모님이 반대가 있었으며, 가고 싶던 학교에 재도전을 하더라도 실패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금 휴학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계획한 일들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시간으로 휴학기간을 보내지 않을까 불안감이 있었다고 한다.

(1) 부모님의 반대

참여자의 부모는 자녀의 휴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휴학을 승낙하였다. 하지만, 휴학결정과정에서 무의미한 일 년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빨리 졸업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흔쾌히 휴학을 승낙하는 경우는 없었다.

(2) 재도전에 대한 불확실성

다시 한 번 수능시험 준비를 통해 재도전 했으나, 원

하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일 년의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결과가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도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불안해하였다.

(3)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것 같은 불안감

휴학을 결심하는 때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고 특별한 목적없이 휴학을 위한 휴학이든 상관없이, 참여자들은 모두 ‘휴학한 1년의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특히, 휴학의 목적이 원하는 대학으로의 재도전인 경우,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도전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의미 없이 허비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2. 휴학 동안의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휴학기간동안, 대체로 자신이 사전

Table 3. 휴학 결심시 경험

주제모음	주제	하위 주제	의미 있는 문장
학업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놓임	어쩔 수 없는 선택	임신이 됨	임신이 되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2-1-1)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김	경제적으로 등록금뿐만 아니라 여기서 생활하는 생활비라던가 밥값이라던가 충족이 돼야 하는데 그럴 수단이 없으니깐.(10-1-3)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함	피부병이 있었는데 원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전체가 붉어져서 그게 일차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1-1-1)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병이 있는데 발병을 하면 일탈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3-1-1)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대로 학교를 다니면 제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휴학계를 낸 것 같아요. (4-2-1)
		가족 병간호를 할 상황이 생김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셔서, 입원 후 병간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웬지 제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7-1-1)
	자기 주도적 선택	아무것도 안하고 쉬고 싶음	좀 아무것도 안하고 쉬고 싶었어요. 무기력하다고 해야 하나? 그랬죠.(12-2-1),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아요.(8-1-2)
		원하던 학교의 재도전을 희망함	군대생활 말고 이렇게 멀리 온 것이 처음이거든요. 적응도 되게 힘들었어요. 한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서울권이나 수도권 안에서 다닐 수 있는 한의대를 원했어요.. (6-1-2)
불확실한 선택에 대한 불안감	부모님의 반대	휴학 상의 시 부모님이 반대하심	부모님은 반대 입장이었어요. 휴학을 또 하게 되면 다른 또래 애들에 비해서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1-1-4), (예과 1학년 때) 휴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말리셨거든요. (4-1-1),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휴학은 못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다녔다고 해야 되나.. (4-1-2), 부모님께서서는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어요. 다만, 저의 생각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5-1-5)
		재도전에 대한 불확실성	의대입학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니깐 휴학을 주저했어요. (5-1-4), 제 현실이 좀 슬픈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한의대에 들어왔는데, 다 포기하고, 나이 먹고 재수공부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5-1-9).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것 같은 불안감	휴학을 해도 원하던 의대 입학이 보장된 것이 아님	의대입학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휴학을 한다는 것이 가장 주저되었어요.(5-1-4)
		휴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낌	제가 재수를 해서 학교에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일 년 늦게 온 거고 또 이어서 휴학을 계속 하니깐 또래에 비해 졸업이 늦어진다는 것에 부담감이 있었어요(10-1-4)

계획한대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험도 하게 된다. 즉, 휴학 결심 시 봉합되지 않았던 가족과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기도 하였으며, 이성친구와 결별하게 되기도 하였고, 원하던 대학으로의 재도전에 실패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불안, 분노, 좌절을 경험하였다. 한편, 예상외의 긍정적인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 즉, 새롭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기도 하였으며, 한의사로서의 자신의 미래모습을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Table 4).

1) 갈등과 불안감

휴학 초기에 불확실한 선택의 연장선으로 휴학을 경험하는 동안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혹은 선택해야만 했던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바쁜 학과 생활에서 벗어난 편안함은 느낄 수 있었지만 못 마땅해 하는 가족들과의 마찰이 생기기 쉬운 불안한 심리적 상태와 휴학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정해진 학과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 혼자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 느낌과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계속해서 겪게 되었다.

(1) 가족과의 불편한 동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한의과에서 보내다가 휴학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가족과의 마찰도 더 심해지고 부모님이 원했던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휴학 초반에 불안한 감정이 서로에게 있었다고 한다.

(2) 혼자 뒤쳐진 것 같은 불안감

참여자들은 휴학기간동안 다른 동기나 선, 후배들은 정해진 학과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혼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과 바쁜 생활을 하지 않지만, 심적으로 불편한 감정은 가지고 있었다.

2)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시간

참여자들은 휴학 초기에 했던 계획이나 생각 등을 실천하면서 학과 생활을 하면서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였다. 휴학을 꼭 계획에 맞춰 진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바라는 대로 아무 일정이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경우도 있었으며, 원하던 대학을 재도전하

기 위해 수능 학원을 다니거나 워킹 홀리데이 같이 해외에서 일을 하며 여행을 떠나는 등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휴학기간을 보냈다.

(1) 원하던 대학에 재도전

원하던 대학을 다시 도전하기 위해 휴학을 했던 참여자들은 주로 학원을 다니거나 독서실을 다니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으며, 열심히 공부하였다.

(2) 자신에게 주는 휴식

바쁜 한의학과 생활을 잠시 멈추고 쉬고 싶다는 목적으로 휴학을 한 참여자들은 아무 계획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인간관계문제로 휴학을 해서 친구와도 잘 안 만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만나거나 집에서 쉬면서 휴식을 가졌다.

(3) 머리를 식힐 수 있었던 여행

여행을 계획했던 참여자의 경우 기존에 해외를 다녀온 경험을 토대로 휴학을 계획하였으며, 흔히 '워킹 홀리데이'라는 해외에서 일을 하며 여행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도 사귀고 새로운 것도 경험하는 기회를 휴학을 통해 가졌다. 또한 국내를 여행하면서 가볍게 머리를 식힌 참여자도 있었다.

3) 폭넓어지고 개선된 인간관계

학과생활 경험하면서 바쁜 일정으로 같이 수업을 듣는 학우들과는 가깝게 지내지만 가족이나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 지인들은 만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휴학을 경험하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관계가 많이 개선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여행 같은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졌다.

(1) 새로운 인간관계

학과생활을 하면서 시도하기 어려운 해외여행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얻었으며, 폭 넓은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하였다.

(2) 가족과 좀 더 깊은 유대가 생김

평소 학기 중에는 한의학과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Table 4. 휴학동안의 경험

주제모음	주제	하위 주제	의미 있는 문장
갈등과 불안감	가족과의 불편한 동거	부모님과 말다툼이 생김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야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4-5-3), 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어요. 다만, 저의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이해하시지 못하셨어요. (5-1-6)
	혼자 뒤쳐진 것 같은 불안감	재학 중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함	동기들은 엄청 많은 양의 공부를 하면서 보내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본3 1학기 때가 제일 힘들다.'인데. 이제 동기들은 본3시기를 지나고 만나니까 늦어지는 저는 불안이 더 쌓이는 거죠. (2-3-2).
		휴학 중인 자신의 처지가 불안함	심리적으로 이제 학교에 안가고 혼자 있으면서 뭐 배웠는지 이런 것도 까먹고 한자도 못 읽겠고 그럴 때 자괴감 같은 것이 많이 들었어요. (2-2-2)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2-2-3)제 현실이 좀 슬픈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한의대에 들어왔는데, 다 포기하고, 나이 먹고 다시 재수공부하고 있는 내 모습이.. (5-1-9), 심리적으로 터널 안에 갇혀있는 느낌..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6-1-6), 내가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11-3-1)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시간	원하던 대학에 재도전	의대입학을 위해 노력함	의대라는 목표를 위해 2주 정도는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입시학원에 등록하고 공부했어요. (5-1-7), 원하던 의대 입학에 대해 노력했어요 (8-1-2)
	혼자만의 시간	특별한 계획 없이 휴식을 취함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1년을 쉬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2-2-7), 저는 일부러 계획을 안 하려고 했어요. 재수나 삼수를 하면서 계획 세우는 것에 압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반동빈둥 할려고 했어요. (1-2-5) 마음이 편해졌달까 .. 휴식 느낌? 약간 지쳐있었는데 .. (11-1-5)
	머리를 식힐 수 있었던 여행	호주로 여행을 감	(호주에서) 자연을 본다던지 바다나 강을 본다던지, 가고 싶었던 카페를 간다던지. 이런 하고 싶은 것들을 했어요. 친구들을 만난 다 던지. 교회도 잠깐 다녔고. (9-2-2)
폭 넓어지고 개선된 인간관계	새로운 인간관계	외국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남	주로 외국인 사장님에 외국인 친구들이어서 대화주제나 대화방식이나 생각하는 것이 차이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9-2-3)
	가족과 좀 더 깊은 유대가 생김	취미활동을 함께하며 아버지와 친해짐	아버지하고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지의 취미활동이 사진촬영이었는데 같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1-4-5)
		가족과 함께하며 서로를 더 이해함	할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할머니와 사이가 좋아졌어요. (7-1-1), 대학 다니느라고 계속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휴학하고는 집에 있으니까 서로 이해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11-1-9)

때문에 가족과 소통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취미도 함께 하면서 마찰도 있었으나 가족으로써의 유대가 더 끈끈해지기도 하였다.

3. 복학 과정의 경험

예정된 복학이었던, 예정된 복학이 아닌던 상관없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복학 첫날의 어색한 시선들, 낯선 출석부 호명순서, 점심을 누구와 함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등을 기억하였으며, 또한 주변 선후배들의 도움, 새로운 동기친구들의 배려, 새로운 학습 환경에의 적응 등을 경험하면서 복학의 부담감을 차츰 해소해 나갔다(Table 5).

1) 복학에 대한 부담감

참여자들은 대부분 복학 시 새로운 인간관계와 환경 적응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부담감은 복학한 첫 날 가장 컸다. 학생들은 이날의 경험을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 ‘불편했던 시선들’, ‘이제 누구와 밥 먹어야하지?’ 등으로 기억하였다. 또한, 무사히 졸업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가지기도 하였다.

2) 복학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됨

참여자들 중 일부는 휴학 당시의 고민 보다 훨씬 괜찮은 상황에 안도감을 표현했다. 복학 후 재학 중이던 선, 후배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기도 하였으며, 입학동기들이 미리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해 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정적인 복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학업 문제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1)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느낌

참여자들은 휴학 당시의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선배, 후배들의 도움을 받고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2)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함

참여자들은 복학 이후에 새로운 학습 환경에 대해 적응을 하였으며, 휴학 전보다 마음이 가볍다고 하였다. 또한 한 참여자는 성적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다.

4. 휴학경험의 의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휴학경험을 모두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했다. 한의대에서의 학업의 부담을 벗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보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이 시간들은 ‘나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였고, ‘정서적 성장의 계기’였으며, 또한 ‘학습의지회복의 계기’가 되었다(Table 6).

1) 나를 위한 선물

참여자들은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기 위한 기회와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휴학을 했던 참여자들도 가족을 되돌아보고 학교 밖의 사회를 경험하며 자신을 좀 더 성장시키는 기회를

Table 5. 복학과정의 경험

주제모음	주제	하위 주제	의미 있는 문장
복학에 대한 부담감	새로운 인간관계와 환경적응에 대한 부담감	새로운 친구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낌	이제 동기들이랑 떨어져서 밑에 학번이랑 같이 다녀야 되는데 제가 밑에 학번이랑 친한 애들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죠. (2-1-2), 복학하면 저 혼자 다녀야 되고 이런 것이 되게 불안하고 했어요. (2-2-1), 기존에 있던 사람들 속에 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새로운 친구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불쾌한 존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9-5-1)
		새로운 환경 적응에 대한 어려움	내년에 다시 복학해서 졸업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적응 못해서 휴학을 한 건데 1년 만에 그게 고쳐질 수 있을까? 같은 고민.. (4-2-4), 인간관계로 휴학했는데 복학하면 당연히 인간관계도 다시 시작이 되는 거니까.. (4-3-3), 복학생이라는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새롭게 적응 하는 것이 쉬우면 쉽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0-3-1)
복학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됨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느낌	주변 친구, 언니 오빠들이 챙겨줌	동생이나 언니 오빠들이 너무 잘 해주어서 처음에는 제 스스로가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주위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쁘게 받아줘서 고맙웠어요. (9-5-2), 같은 학년에 언니들이 드라이브 시켜주고 먹을 것 챙겨주고 그런 부분들이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9-5-3), 같은 학년에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은 언니 무리가 있었어요. 그 언니들이 절 많이 챙겨 주셨어요. (10-2-2)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함	학업을 따라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음

가졌다.

(1) 휴식의 시간

참여자들이 대학 생활 중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부분 들인 주위 시선, 압박감, 학점 관리 등을 잠시 멈추고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심적인 부담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휴식기회를 가졌다. 또한 여행이나 친한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2) 내 꿈을 위한 노력의 시간

한의학대에 입학하기 이전의 목표였던 의과대학에 도전하거나, 학과 생활을 하면서 해보기 힘든 해외여행 을 다녀오는 등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을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었던 기회의 시간을 가졌다.

2) 정서적 성장의 계기

휴학을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은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심리·성격·태도 적인 측면으로 정서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1) 인간관계의 변화의 계기

복학 전에 참여자 대부분이 불안해했던 부분인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감은 참여자들의 예상과 달리 따뜻하게 대해주는 새로운 동기 및 선후배들에 의해 차츰 사라졌다. 또한 대부분이 가족과의 관계가 더 좋아 짐에 따라 좀 더 학과에 집중 할 수 있는 심적 여유가 생기기도 하였다.

(2) 심리·성격·태도 변화의 계기

참여자들은 기존에 경제적인 문제, 가족 문제, 건강 상의 문제 등 학업에 전념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심리·성격·태도 부분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으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휴학 전보다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3) 학습 의지 회복의 계기

휴학이라는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약해졌던 학습 동기를 되살리고 새로운 학습방법을 시도하면서, 학교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주도적 노력을 하였다.

(1) 새로운 학습방법을 발견

휴학기간 중 기존에 미흡했던 한의학과 관련된 학문 과 부족했던 학습방식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복 학 후 시도 해보면서 학과 생활을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 학업에 대한 새로운 동기가 생김

원하던 대학에도 도전해보고 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일들을 해보면서 한의사에 대한 목표를 다시 명확하게 잡고 복학을 결심함에 따라 새로운 동기와 기존보다 더 큰 활력과 의지로 학과생활에 임할 준비를 하였다.

VI. 논의 및 결론

휴학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다. 그들은 ‘안정된 집에서의 이탈’, ‘부적응’ 등 휴학을 대치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¹¹⁾. 그러나, 휴학에 대해 새롭게 의미부여를 하는 연구도 있으며, 특히 입학 동시 어느 정도 직업적 안정성이 있는 전문 직업군 계열학과 학생들의 휴학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¹⁾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의대생들의 휴학원인은 주로 외부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휴학하는 경우와 자신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선택으로 휴학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이는 긍정적인 휴학과 부정적인 휴학으로 표현한 임 언 등¹²⁾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나, 어쩔 수 없이 휴학한 경우에도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휴학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둘째, 한의대생들은 휴학결심단계에서 불확실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였다. 휴학기간동안 달성하리라고 계획했던 목표달성에 실패한다든지, 일 년의 기간을 혹 무의미하게 보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는 휴학생들은 휴학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이 늦어질 것이라는 불안감¹²⁾¹³⁾ 복학 후 새로운 동료들과 지내야 한다는 불안감¹⁴⁾을 느낀다는 부분과 유사한 결과이다. 셋째, 참여자들은 휴학기간 동안 ‘가족들과의 갈등과 불안감,’ ‘외로움,’ ‘주변의 불편한 시선’ 등의 부정적인 경험과 ‘새롭고 자유로운 시간,’ ‘가족 간의 관

Table 6. 휴학경험의 의미

주제모음	주제	하위 주제	의미 있는 문장
나를 위한 선물	휴식의 시간	힘든 것을 내려놓음	저는 일부러 계획을 안하려고했어요. 재수나 삼수를 하면서 계획 같은 것에 압박감을 받았던 것 같아서요. 일부러 빈둥빈둥 할려고 했어요. (1-2-5), 제가 이제까지 주위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었거든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1-2-6), 그냥 집에서 tv보고 컴퓨터 하고 .. (4-3-2), 마음이 편해졌달까 .. 휴식 느낌? 약간 지쳐 있었는데 ..힘든 것들을 내려놓고 좀 떠나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11-1-6),
		내가 원하는 취미 활동을 즐김	호주에서 자연을 본다던지 바다나 강을 본다던지, 가고 싶었던 카페를 간다던지. 이런 하고 싶은 것들을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다 던지. 교회도 잠깐 다녔고.(9-2-2), 공연을 되게 많이 보러 다녔어요. 뮤지컬 같은 거 많이 보고, 평소 수동적인 삶을 살다보니까 활동적인 것이 되게 좋더라구요. (6-4-3), 부모님이 제주도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번.. 올레길 벚꽃 같은 곳 주변을 여행 다녔어요. (11-2-2)
	내 꿈을 위한 노력의 시간	목표와 꿈을 향해 노력함.	의대라는 목표를 위해 2주 정도는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입시학원에 등록하고 공부했어요. (5-1-7), 호주가서 친구들하고는 꿈 이야기 하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9-4-1)
정서적 성장의 계기	인간관계 변화의 계기	가족들과 사이가 좋아짐	아버지의 취미활동이 사진촬영이셨는데 같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1-4-5), 할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할머니와 사이가 좋아졌어요. (7-1-2), 휴학하고는 집에 있으니까 서로 이해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11-1-9)
		주변 학우들이 자신에게 잘 대해줌	동생이나 언니 오빠들이 너무 잘 해줘서 처음에는 제 스스로가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주위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쁘게 받아줘서 고마웠어요.(9-5-2), 같은 학년에 언니들이 드라이브 시켜주고 먹을 것 챙겨주고 그런 부분이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9-5-3). 같은 학년에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은 언니 무리가 있었어요. 그 언니들이 절 많이 챙겨 주셨어요. (10-2-2)
	심리·성격·태도 변화의 계기	쾌활 하려고 노력함	혼자지내는 편이었는데 복학하고 나서 더 쾌활 하려고 노력하려고 의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6-6-1)
		휴학 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됨	복학한지 1년 반이 지났는데 1년 반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되게 좋아요. 저의 지금 생활이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지금은 적응이 된 거 같아요. (10-2-3),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게 됨	휴학을 여러 번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어요.(7-1-3)
학습 의지 회복의 계기	새로운 학습방법을 발견	부족했던 부분을 공부함	제가 복학하기 전에 준비한 것이 한자공부였어요. 한자에 제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1-3-2), 병원상담 중에 공부습관을 강조해서 학기시작 전 연습을 하고 복학했다. (3-9-1)
		새로운 학습 방법을 시도	기준에 같으면 시험공부에 대한 집중을 한다면 이제는 목표를 정해서 좀 재미있고 깊게 어떻게 내 스타일로 공부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9-5-5)
	학업에 대한 새로운 동기가 생김	하는데 까지 열심히 학과생활을 하고 싶음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워낙 겁을 먹구 동기들한테 본3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동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2-5-1) 현재는 할 수 있는데 까지 학교를 다닐 것 같다. (졸업을 해보고 싶다.) (3-8-1)
	한의학을 검증하고 싶음	지금 생각은 열심히 공부해서, 한의학을 검증하고 싶어요.. 만약, 아니라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요..(5-3-6)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치료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치료해보고 싶습니다. (3-10-1)	

계개선, '새로운 인간관계'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함께 하였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개선 및 새로운 인간관계는 휴학 결심시에는 기대치 않은 경험으로 자신의 휴학 경험을 풍성하게 하고,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넷째, 참여자들은 복학과정에서 '복학에 대한 불안감'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과 학습여건 등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주로 걱정하였다. 휴학 전 불편했던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로 인해, 고마움과 안도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이거나 혹은 덜 부정적인 복학과정에서의 경험역시 자신의 휴학경험을 풍성하게 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휴학경험을 '나를 위한 선물의 시간', '정서적 성장의 계기', '학습의지 회복의 계기' 등으로 모두 긍정적 의미부여를 하였다.

바쁜 학교생활을 잠시 멈추고 휴식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좀 더 내면의 목소리와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며, Shin 등¹⁾이 휴학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더 자신답게 살고 싶다는 실존적인 삶에 대한 욕구라고 표현 한 것과 유사하였다. 휴학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한 첫 선택이기도 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휴학도 최종결정은 본인이 하였으며, 휴학기간 중에도 주도적으로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였다. 휴학기간동안은 나를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시간^{15,16)}이었으며, 또한 학습의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의사의 모습을 동경해서, 경제적인 안정성을 추구해서 한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이후, 대학의 낮은 학습 환경과 과다한 학업량으로 문화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⁴⁾ 특히, 한문과목과 한의학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전공과목들의 낮은 패러다임과 학습량은 그 동안 익숙했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달라 학생들의 학업의지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휴학경험을 통해 한의대 학습 환경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학습의지를 높이기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교육현장에서도 다가치, 다문화라는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번 휴학경험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가치관, 인생관 뿐 아니라, 학업스타일, 이성관계, 부모-자녀관계, 교수-학생관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을 관리하고, 상담하기 위해선 공감에 바탕한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임을 다

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휴학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은 본 연구에서 빠져있다. 다만, 휴학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의 대다수는 자신이 원하는 다른 대학에 재도전을 한 경우이므로, 본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12개 한의과대학 중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의대생의 휴학경험에 관한 연구이므로, 전체 한의대생의 휴학경험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유급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의대생의 휴학은 자신의 삶을 좀 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이 된 것이었으며, 한의대생들은 휴학과 복학경험을 통해, 휴학 전 보다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한편, 학생들과의 인터뷰 중, 휴학결심 당시 상담했던 교수님이 있었나는 질문에 학생들은 대부분 휴학 결심 후 행정적인 목적의 상담만을 하였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학생상담에 있어 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향후 본 연구의 내용이 학생상담에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http://www.skoms.org/webzine/200904/bbs/bbs/board.php?bo_table=02_01&wr_id=383
2.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휴학현황자료(2005~2015)
3. Song YS, Kwon SB, Ahn KS, Kim YN, KIM SH, Cha MJ. A Study on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Majoring Dental Hygiene at K-college Kyung Bok College, 2003; (7): 297-316.
4. Han ER, Chung EK, Oh SA, Chay KO, Woo YJ Medical Students' Failure Experiences and Their Related Factors Korean J Med Educ. 2012; 24(3): 233-240.
5. Chu HJ, Cha SH.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our-year college students' stop-out. J Educ Adm, 2011;29(1):277-93.

6. 대전권 대학 휴학생, 전국 대학 평균보다 높아
joongbo.co.kr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305070189
7. Shin HT, An HJ. The Experience of the Stop-out of Female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4; 23(3): 165-175.
8. Choi MS, Kang JH. Qualitative study about experience of students' dropping out. Korean J Youth Stud. 2008; 15(7): 23-25.
9.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6p.
10. Guba EG, Lincoln YS.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89;
11. Kim SY. An analysis o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student support programs effecting on student retention. J Career Educ Res. 2007; 20(1): 11-41
12. Lim E, Kwak YY. Female College Students' Leave of Absence Types and Related Facto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1 30(2): 231-248
13. Kim HD, Kim JH. Korean college student stop-out experiences & employment outcomes. Labor market outcomes i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Paper presented at :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onference on Employment Panel. 2013;
14. Park SY. A Case Study on Causes and Experiences Concerning Leave of Absence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2012;
15. Han ER, Chung EK, Oh SA, Chay KO, Woo YJ Medical Students' Failure Experiences and Their Related Factors Korean J Med Educ. 2012; 24(3): 233-240
16. Kang SH.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dropout thin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Educ Eval. 2010; 23(1): 29-53.